

‘원조 차박’ 카니발, 신기록 몰러 나간다



〈사진=기아자동차 제공〉

기아자동차가 2014년 이후 6년만에 선보이는 신형 4세대 카니발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이끌며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사전계약 개시 하루만에 2만3006대가 계약돼 국내 역사상 최단시간 최다라는 신기록을 세웠고, 이후 영업일 기준 14일간 3만2000여대 계약을 이뤄내며 지난해 판매대수 6만3706대의 절반 수준을 웃돌았다. 계약 고객 중 48%는 최상위 트림인 시그니처를 선택하는 등 프리미엄 미니밴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는 분석이다.

24일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 18일 신형 카니발의 온라인 신차 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기아차는 ‘웅장한 볼륨감’을 외장 디자인 컨셉으로 전형적인 미니밴에서 벗어나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으로 신형 카니발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전면부는 박자와 리듬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주간주행등과 LED헤드램프와의 경계를 허문 심포닉 아키텍처 라디에이터 그릴로 웅장한 인상을 구현했다. 측면부는 속도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후면부는 웅장한 후면 범퍼 등을 통해 강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실내는 ‘무한한 공간 활용성’이라는 디자인 컨셉으로 독보적인 공간 활용성에 차별화된 프리미엄을 더해 사용자의 일상에 최상의 공간과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했다고 덧붙였다.

12.3인치 클러스터와 내비게이션을 통합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터치 방식의 센터페시아 버튼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고, 크렐(KREL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과 ‘앰비언트 라이트’로 감성을 더했다.

기아차, 신차발표회 열고 본격 판매 6년만에 신형... 디자인·성능 UP

여유로운 실내, 독보적 공간 활용성 음성 인식, 주행·하차 보조, 충돌방지

최첨단 안전·편의 사양 총망라

지난달 하루만에 2만3천대 사전계약

크래쉬 패드 중앙을 가로지르는 에어벤트(송풍구) 일체형 메탈 가니쉬는 하단의 고급 우드 가니쉬와 완성도 높은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동급 최고의 승·하차 편의 신기술 ▲사용자를 섬세하게 케어하는 안락한 프리미엄 공간 ▲운전자와 차량을 하나로 연결하는 모빌리티 기술 ▲차급을 뛰어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상품성도 갖췄다.

기아차는 4세대 카니발에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원격 파워 슬라이딩 도어&테일게이트 동시 열람·닫힘,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자동 닫힘 기능 포함), 안전 하차 보조, 승하차 스맛랩프 등 동급 최고 승·하차 신기술을 적용했다. 또 2열 프리미엄 릴렉스 시트(7인승 전용), 2열 사용자를 위한 확장형 센터콘솔, 후석 공간에 보조 에어컨 필터 등을 적용해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프리미엄 릴렉스 시트는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사용자를 무중력 공간에 떠 있는 듯한 자세로 만들어 엉덩이와 허리에 집중되는 하중을 완화시키고 피로도를 줄여준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또 뒷자석에서도 음성 인식이 가능하고, 내 차 위치 공유, 2열 파워 리클라이닝 시트, 카투홈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도 탑재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와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후측방 모니터(BVM),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대거 적용해 운전자 주행 피로도 경감과 동급

최고의 안전성도 확보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4세대 카니발은 가솔린 3.5와 디젤 2.2 등 총 2개 모델, 7·9·11인승으로 운영된다. 가솔린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G3.5 GDI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94PS(마력), 최대토크 36.2kgf·m 복합연비 9.1kg/l (9인승 기준)의 동력성능을 갖췄다.

디젤 모델은 스마트스트림 D2.2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202PS(마력), 최대토크 45.0kgf·m 복합연비 13.1kg/l (9인승 기준)의 동력성능을 갖췄다.

판매가격은 9인승·11인승 가솔린 모델 ▲프레스티지 3160만원 ▲노블레스 3590만원 ▲시그니처 3985만원이다. 9인승 이상은 개별소비세 부과세 대상으로, 디젤 모델은 120만원이 추가된다. 7인승은 가솔린 모델 ▲노블레스 3824만원 ▲시그니처 4236만원으로, 디젤 모델은 118만원이 추가된다. 이밖에 기아차는 올해 중으로 4세대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신형 카니발 하이브리드에는 가솔린 4인승 모델이 추가돼 4·7·9·11인승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아차는 4세대 카니발 출시를 기념해 증강 현실 기술을 활용한 ‘기아 Play AR’ 스마트폰 앱에서 4세대 카니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카니발의 내외장 디자인과 핵심 특징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기아 Play AR 앱을 신규로 내려 받은 고객에게 한정판 아기가상 이모티콘을 증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앱 내 이벤트 모드에서 아기가상 찾기에 성공하면 추첨을 통해 아기가상 안전벨트 인형 및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국민 2명당 1대 꼴 자동차 보유

6월까지 2402만3083대 등록 ... 상반기 35만대 증가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00만대를 돌파하면서 국민 2.16명당 1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02만3083대(이륜차 226만대 제외)로 지난해 말보다 약 1.5% (35만대)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구 2.16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으로,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015년 4.3%, 2016년 3.9%, 2017년 3.3%, 2018년 3.0%, 지난해 2.0% 등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에도 올해 상반기 자동차 등록 대수는 35만대가 늘어 작년 동기(24만대)보다 증가 폭이 컸다.

특히 상반기 국내 자동차의 내수 판매는 93만대로 작년 동기보다 7.2% 증가했다. 이는 신차 출시 효과와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외 시장이 위축되며 수출 판매는 작년 동기보다 33.4% 줄어든 82만대로 집계됐다.

친환경차로 분류되는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68만9495대로 전체 등록 대수의 2.9%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0.6%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친환경차 비중은 2013년 0.5%, 2014년 0.7%, 2015년 0.9%, 2016년 1.1%, 2017년 1.5%, 2018년 1.9%, 2019년 2.5% 등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친환경차 가운데 전기차는 11만1307대로 작년 동기보다 52.9% 늘었다. 하이브리드차와 수소차는 각 57만506대, 7682대로 작년 동기 대비 각 25.3%, 226.5% 증가했다. 수소차 등록 대수는 2018년 말(893대)과 비교하면 1년 반 만에 8.6배 수준이 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차량 중 국산차는 2148만대(89.4%), 수입차는 254만대(10.6%)다. 수입차 점유율은 작년 말(10.2%)보다 0.4% 포인트 높아졌다.

중고차 거래 건수는 192만4000대로 작년 동기보다 6.1% 증가했다. /연합뉴스

렉서스, 더 고급스럽게 더 안전하게

2021년식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세단 'ES 300h' 판매 개시

렉서스코리아는 2021년식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세단 'ES 300h'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ES'는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정숙성, 편안한 실내공간 등으로 인기를 얻은 렉서스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번 2021년식 ES 300h는 후진 시 사각지대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과 작동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브레이크 제어를 통해 충돌방지를 보조하는 '후측방 제동 보조 시스템'(RCTAB)이 적용됐다. 또 주차 시 전후방 사물과의 충돌위험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 작동조건을 만족하면 브레이크를 제어해 충돌방지를 보조하는 '주차 보조 브레이크'(PKSB) 등 안전사양이 도입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

가격은 럭셔리 6110만원, 럭셔리플러스 6320만원, 이그제큐티브 671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렉서스 딜러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진 렉서스코리아 상무는 "이번 2021년식 ES 300h 렉서스 대표모델이 전하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드라이브의 매력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렉서스코리아는 2021년식 ES 300h 판매를 기념해 9월부터 원금 상환 금액을 결정할 수 있고 월 납입금, 유예 비율을 고객이 설정할 수 있는 '렉서스 파이낸스 바이'(LEXUS FINANCE BY) 금융 프로그램을 ES, RX, UX, NX 하이브리드 모델에 제공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명작작명

광화문父子작명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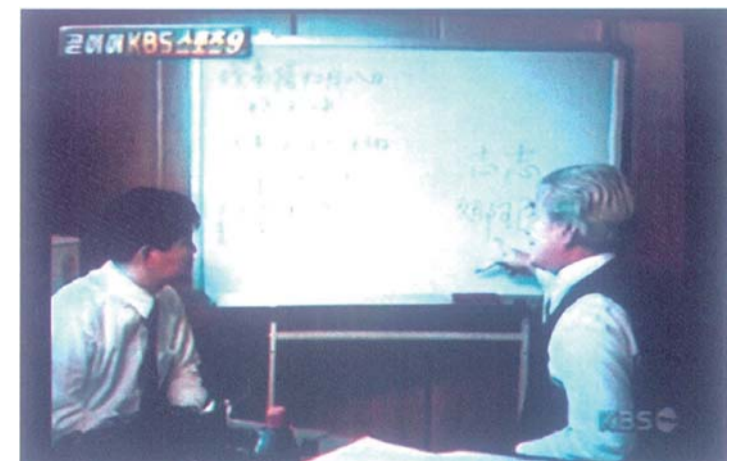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 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작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 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당시 白山 선생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 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